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장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51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2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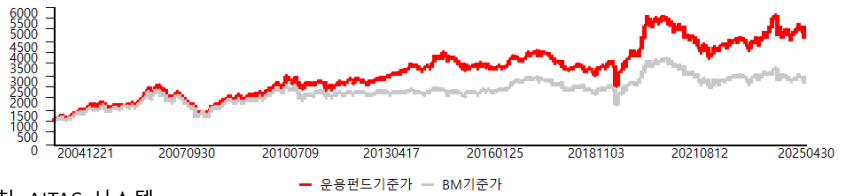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4.18%	3.81%	3.63%	5.25%	16.39%	10.46%	62.12%	408.87%
클래스 A	4.04%	3.40%	2.77%	3.51%	12.61%	5.04%	49.22%	85.58%
클래스 A-E	4.08%	3.52%	3.03%	4.03%	13.73%	6.64%	52.98%	40.86%
클래스 C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E	4.04%	3.38%	2.72%	3.41%	12.39%	4.73%	48.48%	50.77%
클래스 C-P2(연금저축)	4.06%	3.46%	2.90%	3.77%	13.17%	5.84%	51.09%	21.17%
클래스 C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C4	4.03%	3.37%	2.68%	3.30%	12.16%	4.40%	47.65%	69.65%
클래스 C5	4.04%	3.38%	2.72%	3.41%	12.39%	4.73%	48.48%	72.74%
클래스 S	4.09%	3.54%	3.06%	4.09%	13.86%	6.82%	53.38%	47.82%
클래스 S-P2	4.10%	3.57%	3.14%	4.28%	14.35%	7.57%	55.34%	56.33%
벤치마크	3.04%	1.56%	0.02%	-5.03%	2.20%	-5.14%	31.27%	189.11%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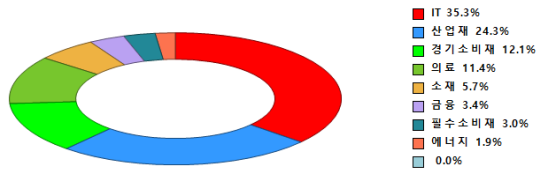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4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4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5.7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0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장비	2.5
현대로템	운송장비.부품	3.0	이마트	유통	2.0
하이브	오락.문화	3.0	삼양식품	음식료.담배	2.0
POSCO홀딩스	금속	2.9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 : 총 연 2.27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3 : 총 연 2.02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0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2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C-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KOSPI는 전월 대비 3.04% 상승한 2,556.61pt, KOSDAQ은 6.60% 상승한 717.24pt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발표로 글로벌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며 한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발표 이후 안도감과 함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되며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기대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이 더해지며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 화장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 전자부품, 정유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1.91% 하락한 1,438.50원을 기록하며 원화 강세를 나타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18.56% 하락한 58.2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기관투자자는 3조 5,472억 원, 개인투자자는 5조 2,497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10조 1,26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과 방위비 지출의 확대가 예상되는 방산 업종,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태양광, 2분기부터 활동이 본격화되는 엔터 업종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유틸리티, 증권 업종의 미보유 효과와 철강 업종에 대한 오버웨이트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한화솔루션, 방산 수출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타난 한화에너지, K2 전자 수출 기대감이 존재하는 현대로템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POSCO홀딩스, 한화비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종목 보유 효과는 펀드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분기 Bit Growth의 상승이 기대되고 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 해외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원전 및 조선 업종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였고, 엔터 업종에 대한 비중 상향을 진행하였습니다. 운송, 인터넷, 화장품 업종은 일부 펀드 소스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5월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무역 분쟁 우려가 점차 완화되며 안정적인 흐름을 모색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의향이 확인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정점을 지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국과의 문화관광 교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연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멈추며 업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는 주요 약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상태에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시장 변동성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조정을 보였으나 관세에 대한 우려가 피크를 지났다는 낙관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실시 등으로 인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4월 수출 데이터 또한 3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며 교역규모의 위축이나 관세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전에 기업들은 일부 안전 재고 확보를 위한 선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해당 이슈로 인한 수요 위축 가능성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증시 상승 구간 내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액티브 리스크를 축소할 계획이며 관세 영향이 제한된 업종 및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비 확장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과 인도-파키스탄 등으로 전쟁이 확대되며 무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유럽, 인도, 중동은 한국 방산 업체들의 주요 수출국으로 한국 업체들의 수혜 강도와 지속성이 과거 대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이후,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수 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구환신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가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바운드 서비스업 강화가 예상됩니다.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나 과거 대비 한국 가수의 공연 일정에 대한 언급이 활발해지고 있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어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BTS, 블랙핑크 등 대형 아티스트들의 복귀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산업 변화 또한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우회수출을 차단하면서 발생하는 반사수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합니다. 중국은 과거 동남아를 통한 우회수출을 통해 미국의 규제를 피했으나 관세를 통해 우회수출로를 차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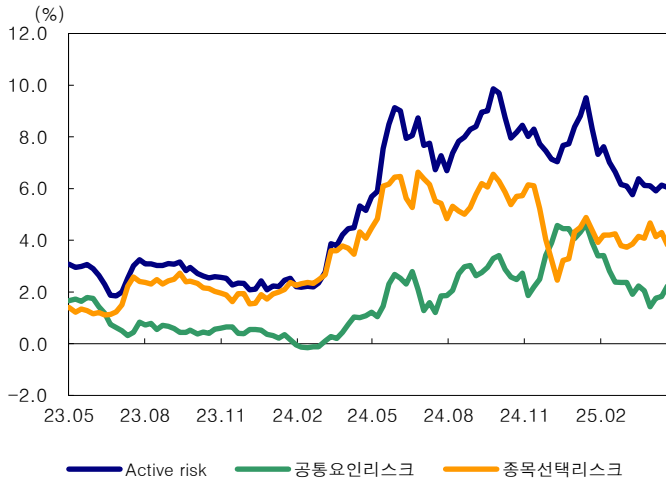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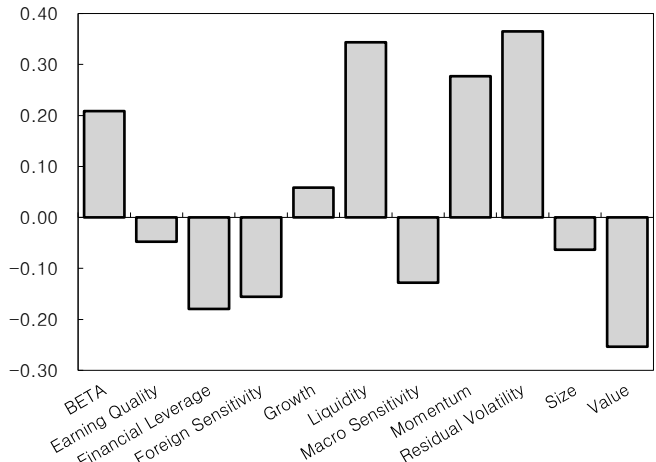
	2025-04-30	2025-03-31
Active Risk ¹	6.14%	6.30%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2.10%	2.09%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71%	1.23%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39%	0.86%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4.03%	4.21%
베타	1.03	0.96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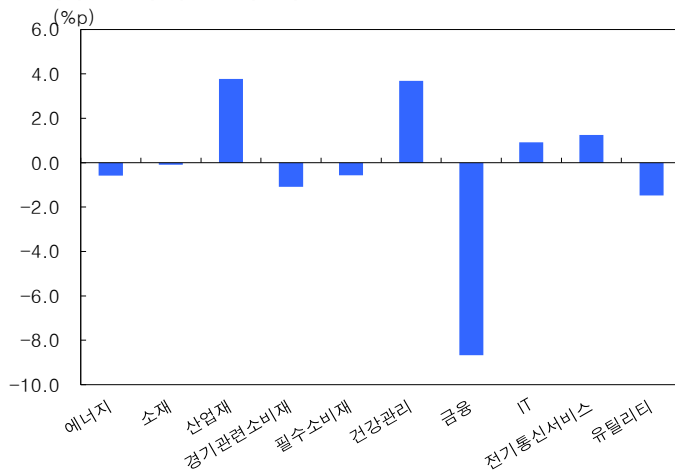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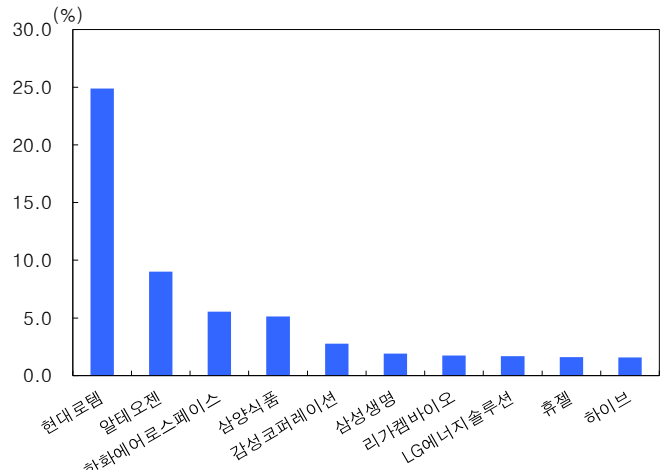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3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4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6.14%로 전월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6개 종목 감소하여, 75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전기통신서비스', '경기관련소비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IT',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3월말 기준으로는 '현대로템'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하이브'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Residual Volatil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